

2017년 5월 18일, 안덕면 광평리 박만희 씨 댁, 김승연 조사.
박만희(여, 1934년생, 안덕면 광평리)

- 줄거리: 그순새는 까맣고 그순새가 다닐 때 땅에 엎드리지 않으면 쓸려 죽게 된다.

[조사자] 그순새 말 골아줍서.

[제보자] 그순새엥 허영 거멍훈게 뎅여낫젠 헤여. 우린 모르는디 경 뎅기민 땅이라도 딱
업더저불지 아녀면은 그에 썰리민 죽넨. 경 헨 우리 헤낫수다게.

경은 헤낫는디 경 헹 아이덜끼리 앗아그네

“야, 거멓게 그순새 오라가민 엎드리지 않으민 죽넨.”

헤영 헤그네 골아나긴 헷인디, 그런 건 본디도 없고.

- 핵심어 : 그순새, 거멍훈 것, 땅, 죽음